

교육통합모델 수행을 위한 학부모 매개자 되기

임성희(전북대) · 김천기(전북대)*

< 요약 >

이 연구는 교육통합모델 수행을 위한 학부모 매개자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천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진정한 ‘학부모 매개자’가 되어가는 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교육통합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학부모 매개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학부모 매개자 교육 참여자들은 학교현장에서 교육통합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천하며, 그러한 실천과정을 통해 어떻게 학부모 매개자가 되어 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학부모 매개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이론과정, 실습과정(타운홀미팅, 초등학교 프로그램참여, 참여관찰)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통합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프로젝트 기획전 사전과정(MBTI), 학생에 대해 알아가는 사전 인터뷰와 선호유형검사(MMTIC), 자신과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기획, 그러한 분석과 준비를 통한 교사협의회, 사전 준비 과정에서 매개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실행해보는 회차별 프로젝트 실행 사전 피드백, 회차별 실행 사후 피드백, 사후 시사회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아이들과 매개자가 만나는 마지막 과정인 사후인터뷰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부모 매개자 되기’는 보살피기 어려운 아이에 대한 보살핌을 채워가는 자기준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묻는 자기 물음이고, 자기 돌봄이다. 또한 학부모 매개자 되기는 교실현장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여 교육의 핵심 주체로 바로 서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학부모가 교사와 공동 대응 할 수 있다면 학부모의 공적역할은 교육의 변방에서 교육의 핵심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교육통합모델, 학부모 매개자, 타운홀미팅, 자기 돌봄

* 교신저자: 김천기(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agape-kcgi@hanmail.net)

I. 서론

우리의 공교육은 지식 위주의 입시 경쟁 교육에 매몰된 채 시장논리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한 발짝도 내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나 전인적 성장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도 담아내지 못하였다(박일관, 2014; 이영호, 2002; 강태중·강충서, 2013; 배은주, 2006).

이러한 교육의 현실은 학교를 더욱 멍들게 하면서 아이들은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걸 참지 못하며,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는(존 테일러 개토, 2015) 일그러진 모습을 보이지만, 학생들의 그런 모습은 ‘오래 그런 것’으로 무뎠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실 현장의 문제는 교사의 한정된 시간과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강소연, 2009), 이에 따라 학부모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도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기주도 학습코칭 매뉴얼, 자유학기제, 학부모 교육 매뉴얼,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자녀를 위한 행복한 교육 등 온라인 이수(교육부, 2015; 이미화 외, 2015)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교육부는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자녀이해 및 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09년부터 교육부내 학부모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학부모 지원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의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학부모의 역할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장명선 외, 2015; 교육부,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교육 주체로서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지금까지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아직도 보조적이고 주변적 존재로 인식되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다(최상근, 2009; 2010). 또한 여전히 학부모 교육은 절차적 형식적 교육에 치우쳐 있고, 학생과 교원, 학교 그리고 가정·지역사회와 학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도 부재한다. 이에 학부모 교육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공교육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그에 합당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학부모 역할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육통합모델이다. 교육통합모델은 가정·지역사회와 학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학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임성희 외, 2017). 교육통합모델은 교육관련 시행기관(교육청, 학교, 교육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와 협력강화 및 통합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모델이다. 교육통합모델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례의 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교사,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중요한 공동대응의 주체가 된다. 특히 학부모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매개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 수행은 ‘교육통합지원센터¹⁾’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1) 교육통합지원센터는 2014년 2월 개소한 완주군이 설립한 교육과정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교육전담중간

‘학부모 매개자 되기’는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주변적 존재에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사례이며 교실현장의 문제에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지원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에서 모둠에 들어가 ‘아이들의 일상을 옆에서 들어주는’ 역할은 교사, 상담자,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매개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학교현장에서 투입되어 교사들의 어려움을 공유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육통합모델 수행을 위한 학부모 매개자 교육 및 현장 실천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진정한 ‘학부모 매개자’가 되어가는 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통합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학부모 매개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학부모 매개자 교육 참여자들은 학교현장에서 교육통합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천하며, 그러한 실천과정을 통해 어떻게 학부모 매개자가 되어 가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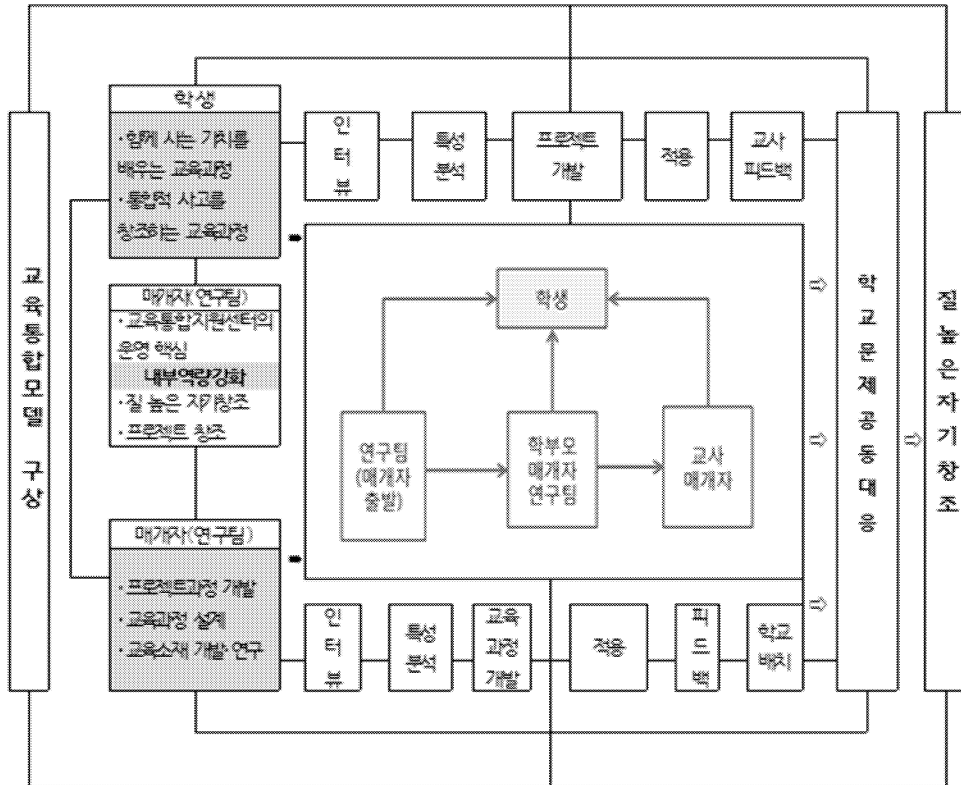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교육통합모델, 학부모 매개자,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 단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통합모델

교육통합모델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가정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으로(박윤배·김경식, 2002; 한국교육개발원, 2013a) 가정에서 보살핌이 결핍되어 장시간 머무는 교실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교육주체(학부모와 교사)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임성희 외, 2017)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통합모델을 적용하고자 할 때 [그림 1]의 교육통합모델 기본 구상이 중심이 된다. 기본 구상은 학생 교육과정, 매개자 내부역량강화 과정, 매개자 프로젝트 개발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둠 내 발생한 수많은 사례에 대해 참여학생, 매개자, 교사, 참여관찰 매개자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임성희 외, 2017).

지원조직으로 실행팀과 연구팀을 병행하고 있다.

2. 학부모 매개자



[그림 1] 교육통합모델 기본구상

지금까지 학부모는 공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으며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왔다(김기수, 2017; 최상근, 2009; 2010; 이명희 외, 2009).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 연구(김장중, 2017)에서는 학부모 자체의 한계나 문화적 전통에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근본 원인은 국가와 교육청이 교육을 독점하여 중앙집권적 폐쇄적 운영 방식과 입시위주교육 구조에서 학교가 갖는 한계 및 학교장과 교사의 마인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정책은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강조되고 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긍정적 역할이 중시되면서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교육적 파트너십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Doucet, 2011). 한국에서도 수업봉사자와 지원자로 참여하고,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사는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했을 때 불편감을 자주 경험하지만, 학부모는 협력자이자 감시자라는 규칙을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감정 규칙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한다(손준중, 2012).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촉진하는 정책과 학부모는 교육의 협력자라는 교사의 인식은 학교가 교육청과 교사에 의해 전유되는 배타적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통합모델은 교육 문제에 직면한 학생을 교육청과 학교, 교사가 대처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참여학생, 매개자, 교사, 참여관찰 매개자)이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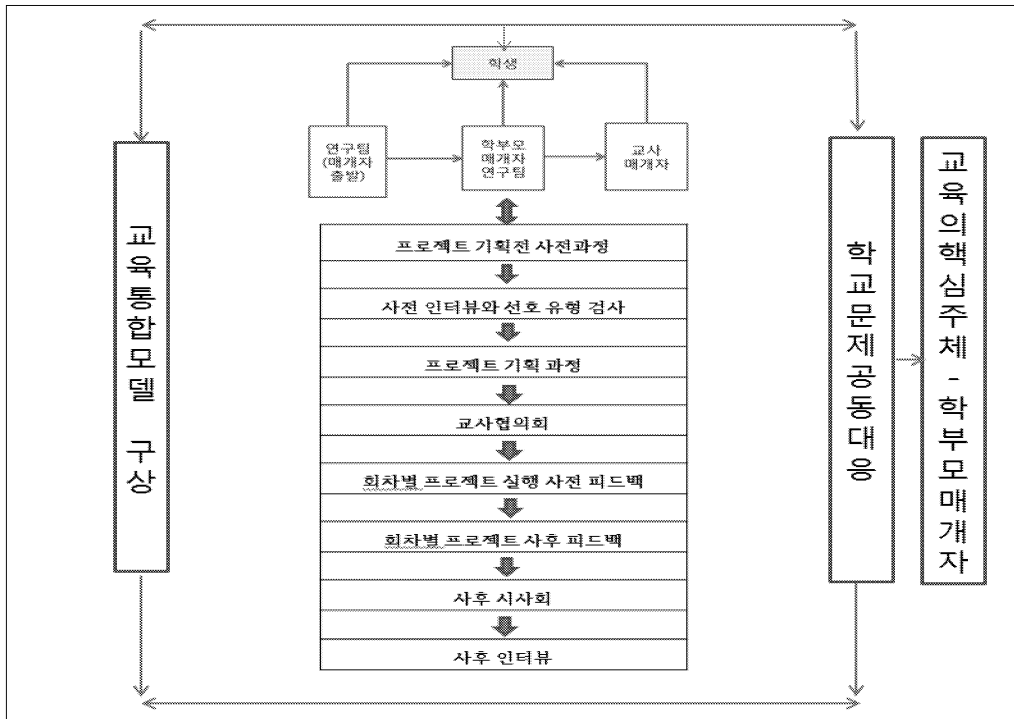
그런데 교사는 순환전보제의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령을 통해 다른 학교로 옮겨가기 때문에(한국교육개발원, 2016; 김갑성외, 2010; 김갑성외, 2013) 지역에 교육주체로서 아이들이 처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지역사회를 떠나 이주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학부모가 지역의 삶의 주체로서 존재한다. 또한 아이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진 교육의 실질적 주체이다.

다만 교육통합모델은 교사의 전문성을 염두에 둔 논의가 아닌 가정·지역사회·학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자로 학부모 주체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 역량에 상관없이 지역과 함께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은 결국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몫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학부모 인적자원 토대를 위한 준비가 매우 절실하다. 이것이 ‘학부모 매개자 되기’라 할 수 있다. ‘학부모 매개자되기’는 교육통합모델 적용과정에서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해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부모 매개자되기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학부모의 교육과 활동을 뛰어넘는 학교현실을 반영한 인식전환과 역할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매개자란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뜻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과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기돌봄’이다.

3.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 단계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는 교육통합모델을 근간으로 개발되어 위기 아동·청소년의 공동 대응의 핵심 주체로서 학부모를 전제한다. 오욱환(2013)에 의하면 무너진 가정의 지지체계 즉, 부모의 역할을 외부에서 수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학부모의 교육적 힘과 역량을 학생들에게 쓰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가정의 지지체계를 보충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성인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공동대응 주체로서 학부모가 가정의 지지체계를 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학부모가 되려면 학교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것은 ‘학부모 매개자 되기’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림 2]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 단계

따라서 연구자는 ‘학부모 매개자 되기’에서 학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면 아동·청소년의 보살핌의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교육통합모델 기본 구상(임성희 외, 2017)을 토대로 [그림 2]의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 단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 하게 되었다. 특히 ‘학부모 매개자 되기’에서 매개자는 아이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또 다른 엄마’의 역할이다. 학부모 매개자 교육과정은 이론 과정인 프로젝트 기획전 사전과정이 있고 매개자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매개자’ 되어 ‘가기’ 단계는 사전 인터뷰와 선호유형 검사, 프로젝트 기획과정, 교사협의회, 회차별 프로젝트 실행 사전 피드백, 회차별 프로젝트 실행 사후 피드백, 사후 시사회, 사후 인터뷰 등이다. 사전 인터뷰는 아동·청소년의 실행 전 상황과 모습을 사후 인터뷰는 실행 후 생각과 느낌, 태도, 표현, 마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과 절차

가. 사례연구

본 연구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 약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부모 매개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통합모델 프로젝트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서 실행하면서 매개자가 되어 가는 사례이다. ‘매개자’란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뜻한다²⁾(임성희 외,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매개자 교육과정 및 매개자 되어가기에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통합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가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학부모 매개자 교육과정’은 센터가 2014년 3월 ~ 2017년 7월 현재까지 가정의 ‘보살핌’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학교문제에 ‘학부모 매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부모 매개자’가 하는 활동이 향후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단적이고 독특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은희·서덕희(2014)는 단일 사례연구를 정당화하는 사례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 사례(critical case), 극단적이거나 독특한 사례(extreme or unique case), 계시적 사례(revelatory case)이다. 결정적 사례는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이고, 극단적이거나 독특한 사례는 특정한 사례가 보고할 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끝으로 계시적 사례는 연구문제와 관련한 현상 혹은 상황이 연구자가 일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절하다. (박휴용, 2014; 신경림 외, 2004).

본 사례는 이 중 한두 가지 또는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학부모 매개자’ 사례 역시 그러한바 해당 사례는 결정이면서 독특한, 계시적인 사례였다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학부모 매개자’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여야 한다. 즉, 학부모 매개자가 어떤 교육과정과 훈련을 거쳐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지 그 활동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직접 그 현장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고, 실제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료수집은 직접관찰, 참여관찰 그리고 면담을 사용한 사례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을 인용한 하나의 ‘내재적 사례연구(intrinsic)’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재적 사례연구란 연구자가 특정 사례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며, 연구하는 사례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면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박휴용, 2014; 서덕희·전은희, 2014; 신경림 외, 2004; 조홍식 외, 2015). 본 연구는 센터의 교육과정 중 ‘학부모 매개자’ 교육과정과 학부모 매개자 교육참여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통합 프로젝트를 실천하여 학부모 매개자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여 그로부터 학부모의 자기성찰이 주는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연구(case study)는 하나의 독특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례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 집중한다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일반화에 있지 않으며, 특정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센터의 ‘학부모 매개자’ 교육과정과 매개자되기를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밝히면서 학부모 매개자의 ‘자기 알기’와 ‘성찰’이 주는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영철(2009)에 의하면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도 해석주의 인식론에서는 배제의 논리가 아닌 연구의 도구이면서 연구

2) 거시적 의미에서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연구원들은 매개자라 할 수 있다.

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본 연구는 ‘학부모 매개자’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그 활동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배경과 의미를 사례 자체로써 탐색한다는 관점에서 흥미로운 경우에 행해지는 사례 탐구이므로 ‘내재적’이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자는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완주군에 의해 설립된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실무 팀장으로 ‘매개자 교육과정’에 양성된 학부모들이 교육통합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활동한 사례 연구를 수행했다. 주된 연구 참여자는 센터의 연구원과 학부모매개자들이었다. 이들의 활동과 구성원들에 대해 직접관찰, 참여관찰, 면담이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2월과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주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사전회의, 프로그램 진행, 사후회의 과정을 중심으로 직접참여 및 관찰이 이루어졌다. 직접참여 및 관찰은 학부모 매개자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공식적인 활동과 사전·사후 피드백을 중심으로 하였고, 공식적 활동은 프로그램 기획과정, 진행과정, 사전준비회의, 사후 교사와 함께하는 피드백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자가 직접 당사자로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자료 수집의 많은 부분에서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관점과 해석주의 인식론에서 배제의 논리가 아닌 연구의 도구와 대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이영철, 2009). 따라서 자료 수집의 대부분이 직접참여와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고 이 외에 성장일지, 인공물, 영상 등을 수집하였다

센터의 연구원 면담은 2012년 연구부터 현재 실행까지 함께 해온 동료 연구원을 비롯하여 학부모 매개자 활동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활동경력이 1년 5개월부터 4년을 넘는 매개자와 연구원을 주 대상으로 센터의 별도 공간인 배움터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학부모 매개자 활동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주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자료를 배열화, 범주화, 도표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흐름도를 만들고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모든 중요 측면들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박휴용; 2014)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 학부모 매개자³⁾

이름	성별	연령	활동기간	학력	매개자구분
전미화	여	50대후반	4년이상	사회복지박사과정	연구원매개자
김숙연	여	40대후반	3년이상	교육학과졸	학부모매개자
박수연	여	40대후반	3년이상	교육학과졸	학부모매개자
장재희	여	40대중반	2년5개월	평생교육학졸	학부모매개자
김영희	여	30대후반	1년5개월	문예창작학과졸	학부모매개자
김송이	여	40대중반	1년5개월	회계학과4년자퇴	학부모매개자

3) 연구대상 학부모 이름은 모두 가명임

IV. 학부모 매개자 교육과정

1. 학부모 매개자 이론 및 실습과정

‘매개자’ 교육 과정은 연구원 매개자의 기획을 통해 학부모 매개자들이 이론과정(30시간), 실습과정(타운홀, 교실수업 참여관찰, 초등학교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참여(중·고등학교) 과정이 있다. 매개자 과정은 2017년 현재 10기 매개자가 배출되었다. 1회기 매개자 과정은 10명~15명 규모로 이루어진다. ‘대상 선정 및 모집’은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자원개발 및 지원’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부모가 1차 대상이며, 학교프로젝트 지원과정에서 만나는 학부모, 자신의 아이의 문제로 센터와 협의할 일이 있어 만나는 과정에 매개자 교육과정을 인식하게 되는 학부모, 동아리 대표가 추천하는 지역사회 학부모 그룹, 센터 연구원이 만나는 인터뷰 대상자를 통해 소규모 그룹이 형성되는 경우, 기타 지역사회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또는 주민이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대상이 형성되면 일정 조율을 통해 ‘배달식 수업’의 학부모 매개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론과정’은 마음열기 및 센터 이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MBTI), 의사소통구조 이론과 실재, 좋은 질문, 미션작성 및 실행, 영상제작 발표, 매개자 사례 발표, 청소년 문화, 놀이, 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과정 중 핵심적인 내용은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MBTI), 의사소통구조, 미션작성 및 실행, 영상제작 발표, 매개자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MBTI)’는 매개자에 의하면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의사소통 구조의 이론과 실재’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미션 작성 및 실행’은 아동·청소년과 장시간 논의를 거쳐 실행할 것이 합의에 이른 후 작성하게 된다. ‘영상제작 및 발표’는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진 현장 활동 내용 및 기록을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작품을 같이 공유한다.

<표 3> 학부모 매개자 이론과정

구분	교육과정	진행	비고
1차시	마음열기 및 센터 이해	센터와 외부강사	문화예술
2차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센터와 외부강사	교육상담
3차시	의사소통구조의 이론과 실재	센터와 외부강사	교육상담
4차시	질문법	센터와 외부강사	교육
5차시	미션작성 및 실행	센터	문화예술
6차시	매개자 사례 발표	센터와 매개자	경험
7차시	영상제작 및 발표	센터와 외부강사	IT접목
8차시	청소년문화	센터와 외부강사	청소년이해
9차시	놀이	외부강사	놀이중심프로젝트
10차시	수료식	센터	소박한 파티

‘실습과정’은 주로 ‘타운홀미팅’과 ‘초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다. 이중 타운홀미팅은 정해진 시간과 의제 속에 낯선 이들을 만나 의견을 내도록 촉진하고, 조율하며, 테이블내 공감결과를 전체 합의로 이끌어내는 과정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매개자의 첫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공유하고, 교사와 프로그램 방향 및 개략적인 흐름을 정하고, 매개자와 학교가 협의해서 이뤄진 내용을 놓고 프로젝트 기획을 하게 되고, 현장 답사를 통해 아이들이 나가게 될 현장을 미리 둘러보고 프로그램에 임하게 된다.

배려 받는다는 느낌!!, 예의를 놓치지 않는 언어와 눈빛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구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말이 없는 김00이 자기표현을 하고, 거의 참여를 하지 않던 아이가 친근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하는지 궁금했어요. 이해하고 수업을 하셔서 그런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자꾸 쌤들 언제 오냐고 묻기도 하고 교사에게도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 팀이 있으면 음... 좋겠다. 그럼 수업을 정말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박수연 매개자 인터뷰, 2017)

마지막으로 참여관찰은 타운홀 미팅과 초등학교 프로젝트에 참여가 어려운 매개자를 대상으로 실행한다. 센터의 어려움은 1회기에 양성된 매개자에 비해 발굴 성장할 수 있는 대상이 1~2명이고, 어떤 경우는 한명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⁴⁾ 이론과정을 마치고 실습과정 이수 후 중·고등학교 교육통합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매개자로 활동하게 된다.

<표 4> 학부모 매개자 실습과정⁵⁾

구분	내용
프로젝트 기획전 사전과정	-학교와 협의된 공식적인 일정 공유 -학교환경 및 아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 -현장답사 일정 조율, 참여관찰 매개자의 도움에 관해 공지. 프로젝트 개괄적인 내용 공유 -주요 컨셉 공유,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지에 대해 논의, 모둠 구성에 관련 된 내용 공유
프로젝트 진행 전 피드백 (타운홀 미팅 및 초등학교 안전지도 공통)	당일 진행될 내용 공유 매개자가 테이블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 서로 확인 표적집단에 대해 공유(집중 케어 대상) 의사소통설계를 통한 논의 내용 연습
프로젝트 진행 후 피드백 (타운홀미팅 및	- 당일 진행될 내용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 매개자가 테이블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공유

4) 타운홀 미팅이란? 미국의 타운미팅에서 유래되었으며,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는 미국식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을 일컫는다.

초등학교 공통)	- 표적집단 아이들이 테이블에서 했던 행동과 느낌에 대해 공유 당일 아이들의 소감 공유
타운홀미팅	-기본 3시간~5시간 동안 원탁회의 진행 방식 -규모 50명 ~ 250명까지 다양 -사전 미팅 타운홀미팅 개요 및 취지, 의제 공유, 실제 논의 -타운홀미팅 진행 전 사전 미팅
초등학교 프로그램	-기본 2시간, 총3회기 6시간

2. 프로젝트 기획전 사전과정

사전 과정은 ‘학부모 매개자’가 이론과정과 현장 실습을 마치고 나면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 대한 환경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MBTI검사를 통해 발견했던 자신에 대해 동료 매개자, 연구원(매개자의 출발)들이 같이 공유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서로 친밀해지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준비 시간이다. 매개자교육에 참여한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알아가는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회자하고 있다.

(1) 나 : 나로부터 출발

사실 나는 매개자교육을 받기 전에는 아이가 해야 할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가길 바랐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매개자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때 그 어려움이 나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둘째 아이는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인생에서 처음이었지 싶다.

(박수연 매개자 인터뷰, 2016)

매개자 교육은 해보고 싶어서 참여했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다. 아이들과 같이 배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꼈다. 사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아이들 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맞겠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내가 보살펴야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그동안 엄마와 아내의 틀에서 머물면서 성장이 정체됐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 20대 도전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중략 매개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주위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김숙연 매개자 인터뷰, 2016)

00에서 같은 대학을 다니던 남편을 만나 3학년을 마치고 결혼을 하고 00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8년 전 시댁이 있는 00으로 이사와 생활하고 있다. 외부 활동에 대한 남편의 이해가 깊다. 매개자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스스로 소름끼치도록 감동적이고 기쁘기도 했다. 매개자 과정은 못다 마친 공부와 진로에

5) 실습과정은 타운홀미팅과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습교육으로 타운홀 미팅은 규모에 따라 사전교육이 강화되고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육 과정은 사전·사후 미팅이 매회 진행된다.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었고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나의 성장이 시작되고 있구나'생각했다.

(김송이 매개자 인터뷰, 2016)

매개자 교육을 받기 전에는 우리 아이만 생각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중적인 자신 때문에 힘들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와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다른 자신을 봤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태도와 말투 거친 언행들은 나를 많이 인내하게 했지만, 속으로'우리 아이는 안그러니까 감사하다 생각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 도'예, 응, 아니오'이상의 말 외 거의 하지 않는다. PC방을 간다고 하면 단호하게'안돼'라고 말하던 나와 현재의 나는 정말 놀랍게 달라졌다. 특히 현장 활동을 통해 본 아이들의 문화, 그리고 행동과 일상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어느 날 아이가 전화로'엄마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하는데...'라고 물었을 때'돈은 있어'라고 말하자, 엄마의 반응에 놀란 아이가'응 있어. 엄마 일찍 들어 갈게'라고 반응을 해서 서로 놀랐던 기억이...

(김영희 매개자 인터뷰, 2017)

V.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

1. 학부모가 매개자 되어가기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들이 장시간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학부모 활동과 교육참여는 학교 현장의 문제에 대응책이 되지 못했고 소극적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 즉 절차와 형식적 교육 활동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현장의 실천 사례를 통해 절차와 형식의 내용을 제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교육활동가로 생활하다가 완주군의 제안으로부터 현장 적용과 연구를 병행하는 '조심스러운 떨림' 을 조우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날' 것을 '생' 으로 교육계에 전달할 수 있을까' 가 연구자의 고민이었다. '살아 숨 쉬는' 현장의 이야기는 프로젝트 기획전에 사전과정(나를 찾아가는 과정), 사전 인터뷰, 프로젝트 기획, 교사 협의회, 프로젝트 실행(회차별 사전 사후 피드백), 사후 시사회, 사후 인터뷰 는 등 매개자들의 체험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에 의해 범주화·배열화 되었다.

가. 사전 인터뷰와 선호유형검사(MMTIC)

사전 인터뷰 <표 1> 프로젝트 참여자 일상 이야기는 프로젝트 기획전 사전 준비과정을 마치고 학교와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과정이다. 일상이야기 작성은 매개자의 촉진에 의해 완성되고 인터뷰 과정에서 아이들의 가정형태, 학교지지체계, 또래지지체계, 무기력 정도 및 해소 가능성, 욕구 등을 27개의 질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다. 사전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집단⁶⁾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표적집단을

6) 학부모 매개자가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대상을 말한다.

중심으로 참여 학생에 대해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MMTIC검사를 실시한다. MMTIC검사를 통해 대체적인 아이들의 에너지 방향, 정보수집기능, 판단기능, 생활양식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그림 3]은 선호유형 검사 결과를 예시로 제시한 내용이다.

(1) 너 : 나로 출발하여 너에게

아이들과 첫 만남이었다. 일상을 이야기 하는 자체가 좋았다. 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것이 있었다. 내 아이의 모습 중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내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내 아이를 생각하면 여러가지 마음이 아린 것이 많았다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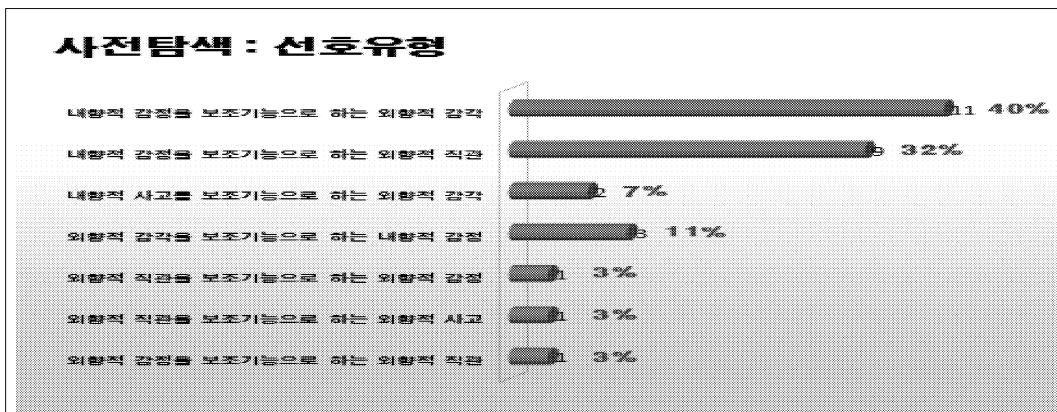
(전미화 매개자 인터뷰, 2017)

아이와 힘든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울고 웃게 되는 경험이었다. 가장 실감나게 아이들의 가정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아이들은 깊은 신뢰를 쌓고 프로젝트에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전미화 매개자 인터뷰, 2017)

인터뷰를 하면서 가정형태와 친구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등을 고스란히 알게 되었다. 특히 어떤 아이를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모둠에 배치되어 들어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중에서 가정형태 예를 들어 아이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혼가정인 경우, 왕따를 당하는 경우 등등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꼭 필요한 과정인 듯하다. 그런데 인터뷰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박수연 매개자 인터뷰, 2017)



[그림 2] MMTIC검사 결과와 경향

나. 프로젝트 기획

매개자는 사전인터뷰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교의 요구와 참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참여 학생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지만 요즘은 학교가 일반 학생과 지원이 필요한 참여 학생이 낙인찍히지 않도록 대상자 구성을 배려하는 경우가 많다.

(1) ‘공부도 좀 재밌어요 프로젝트’ 매개자의 ‘재해석’ 이 발현되다

‘O중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것은 다 재밌었다는데 학습력을 고려해야 해서 ‘공부도 좀 재밌어요’ 라는 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우리는 기획회의에서 공부에 대해 재해석하기로 하고 그 과정을 프로그램화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한 공부의 범위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기획해서 발표회를 하도록 전체적인 맥락을 잡았다. 아이들은 공부란 ‘스스로 계획해서 실천해 보는 것’ 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른 10개의 범주를 구분했고 음악 분야를 선택했다. 음악분야를 아이들은 4개의 영역을 나누었고 모둠별로 팝송 따라 부르기, 랩 가사 만들고 부르기,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방송댄스하기 등을 결정했다. 아이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기 해 주었고 2회 정도 받았다. 매개자들은 관계 전문가들에게 전문적 ‘완성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아니므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향만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2) 매개자가 자존감을 ‘되는 꼴을 보게 하는 것’ 으로 재정의 하다

‘B중학교’ 교사는 아이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자존감 회복(학습력이 더딘 아이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했다. 교실에서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 아이들, 방향성을 잃고 하기 싫어진 아이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 선발에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 멘티 25명 멘토 5명을 선발했다. 아이들은 “ 쌤!!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었다. “우리 뭐하며 재미있게 놀까?” 되물었다. 그리고 ‘같이 해보고 싶은 것, 같이 해서 재미있었던 것’ 을 찾아보자 아이들에게 제안했다.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 회의결과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되는 꼴을 보게 하는 것’ 으로 재정의 했다. 되는 꼴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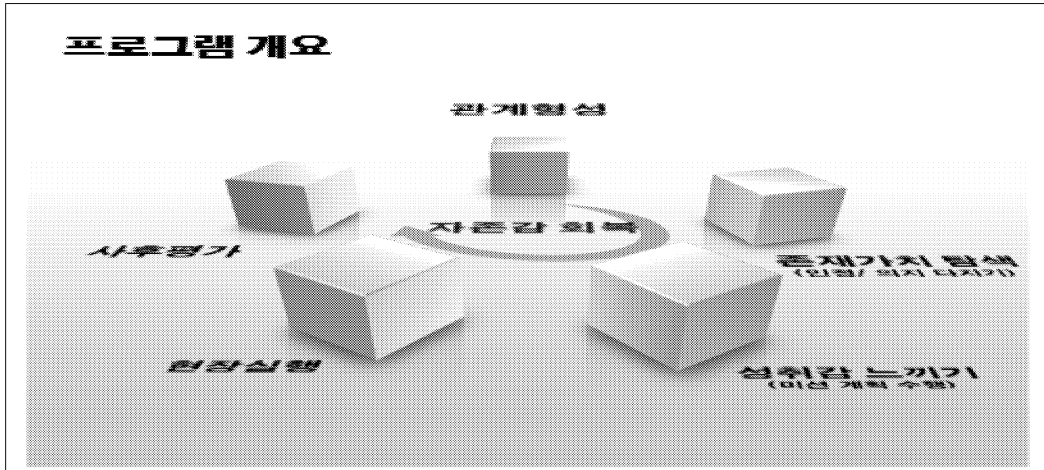
(3) 매개자는 자존감을 ‘학교행사 기획과 만나다’ 과정에서 풀어내다

‘S중학교’ 교사는 교실이 붕괴되어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타지 않고 입만 열면 선생님이 있거나 말거나 ‘스스비’ 을 하고, 학교에 남아나는 물건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사실 이런 경우 우리도 답이 없다. 다만,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고 선호경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학부모 매개자와 셀 수 없이 논의한다. 이 학교는 학교 행사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고민해 보기로 했다. 현장학습 또는 축제 등등을 스스로 기획하는 과정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실천하도록 했다. 과정에 아이들은 모둠을 나누고 역할을 고민하고, 예산을 설계하고 정산하며 어떻게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모둠별로 논의하고 합의해 가는 것을 프로젝트 과정에서 만난다.

다. 교사협의회

인터뷰 및 MMTIC까지 마무리되고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학교의 요구와 환경에 대해 공유하여 기획된 프로젝트 내용을 갖고 교사협의회를 진행한다.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파악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미처 알기 어려운 정보는 상호 교환한

다. 학부모 매개자가 파악한 내용을 교사와 나누면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교사로의 보살핌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학부모 매개자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다. 주로 담임과 프로젝트 전담 교사가 함께 하는데 가끔 교장과 교감이 배석하기도 한다. [그림 3]은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교사협의회 진행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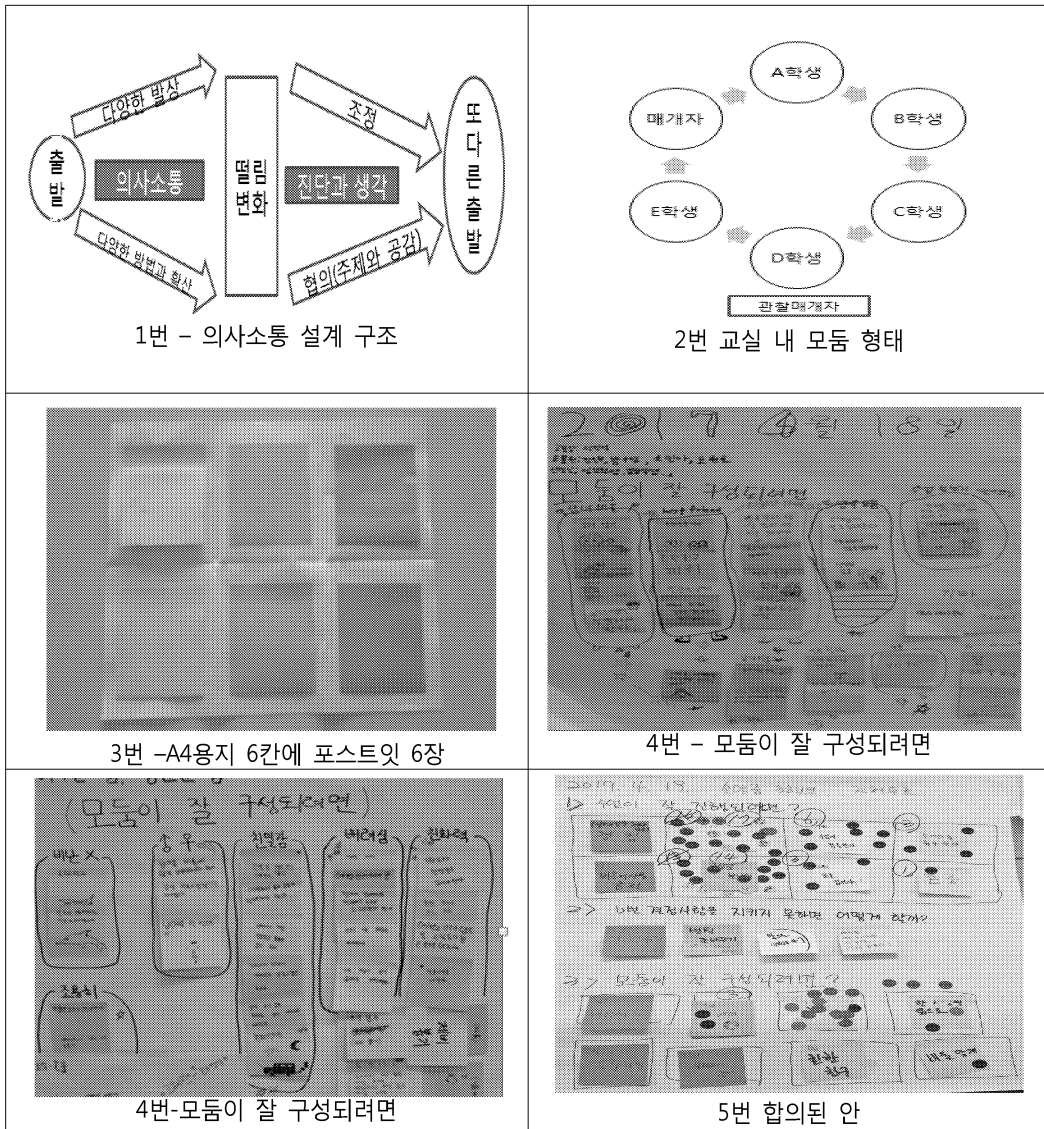
[그림 3]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교사협의회 흐름

라. 회차별 프로젝트 실행 사전 피드백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프로그램 시작 2시간 전에 만나서 오늘 진행될 내용에 대해 공유한다. 의사소통 설계를 중심으로 원형 테이블에 학생들이 앉아 있다고 가정하면 무엇을 논의하고 조정하고 협의할 것인지 그래서 합의에 이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1) 사전 피드백 내용과 과정

예컨대 논의할 내용이 ‘모둠이 잘 구성 되려면’ 이라면 논의할 내용의 수에 따라 A4 용지를 필요한 칸이 나오도록(6칸) 접어서 포스트잇 6장을 붙인 다음 2장을 모둠 구성 논의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모둠 논의에 한 학생이 2개의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그림 4]의 사전 피드백 과정과 내용 3번처럼 포스트 잇을 붙이고 싶은 색깔로 붙인 다음 첫 번째 칸에 의견을 쓰고 3번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른 친구가 두 번째 칸에 의견을 쓰면 ‘내가 쓴 의견으로 시작되어 너와 내가 채우고’, ‘서로 돌리면서 다른 친구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이젤패드에 붙이면서 조정하고 합의’ 하면 ‘모두가 합의한 의견에 이르게 되는 과정’ 을 사전 준비 과정에서 매개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실행해 보고 프로그램에 임하게 된다.



[그림 4] 사전 피드백 과정과 내용

(2) 의사소통 도구들

논의 과정에 쓰이는 것이 의사소통 도구들이다. 교육통합모델에서 학부모 매개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들은 아래와 같다. [그림 5]의 의사소통 도구들에서 포스트잇은 네임펜으로 이젤패드는 유성매직과 네임펜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이젤패드는 대형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이들 발표를 위해 사용한다. 가능하면 교실 환경에서 둥근 원탁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상황에 맞게 세팅 한다. 스티커(도트)는 투표기 사용 이전에 공감도를 모둠에서 나타낼 때 사용한다(테이블에서는 별표를 사용한다). 투표기는 의견이 합의에 이르면 최종 투표를 할 때 또는 타운홀미팅에서 주로 사용한다. 요약카드를 학교마다 다른 이름을 정하도록 하는데 자기 결정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그림 5] 의사소통 도구들

[그림 6]의 A4 용지는 여러 형태로 접어서 논의할 의제 수에 따라 또는 개인이 제시하고 싶은 의견수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의사소통 도구 접기와 활용

(3) 매개자의 축진이 필요한 아이들

프로젝트 진행 중 모둠에 있는 매개자가 유의할 점은 모둠에 앉아 있는 아이 중에 ‘말이 없고 참여가 소극적인 아이들이 의견을 쓰도록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이다. 소극적인 아이들의 태도는 자거나, 장난하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로 이를테면 [그림 4]의 사전 피드백 과정과 내용의 2번 교실 내 모둠 형태에서 만약 B학생과 E학생이 말도 없고 의견도 내지 않는다면 매개자는 그 두 친구를 양옆에 앉히고 역할을 준다. 또는 이젤 패드에 모둠원들이 내놓은 의견을 기록하고 정리하게 한다. 그래도 참여를 안 하면 프로젝트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토닥이고 달랜다. 잠자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고 일단 자지 않도록 계속 독려한다. 장난치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는 너무 심한 경우 참여관찰 매개자의 도움을 받는다. 특히 생각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내향형 친구들은 의견을 쓰고 돌릴 때 쓰지 않아도 미안해 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살핀다. 또한, 쓰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쓰도록 유도하지만, 다음에 쓰게 하고 쓰고 싶지 않은 생각이 크면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적절하게 A4에 포스트잇이 붙여진 A4 용지를 여러 번 상황에 맞게 돌려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인식했던 정보를 통해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테이블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어떤 느낌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대처할지 아이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자연 기다리게 되고 어수선한 프로젝트 수업분위기가 길게 이어지기도 한다. 최소한의 통제와 터치 외는 일정 기간 동안 독려로 일관한다.

마. 회차별 프로젝트 실행 사후 피드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서 각자 테이블에서 활동했던 매개자는 자신이 만났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공유하고 사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내용과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 정도 그리고 깊이 있게 관찰하고 보살피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 공유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둠별 아이들이 보인 또래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활동 참여정도와 소감을 중심으로 리뷰하게 된다. 다음 S중학교에 매개자 이야기를 들어보자.

‘답이없다’조에 하선이가 혼자여서 걱정이 된다. 또래 관계가 현재 구성된 모둠에서 원만하지 않다. 철이와 우현이가 분위기를 좌지우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철이의 거친 말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고 여기에 우현이가 철이와 동조하면서 짜려보는 모습의 눈으로 모둠 아이들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우현이는 수업만 나오고 ‘00프로젝트’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하연이 하고 민수 때문에 참여하기 싫다고 얘기했다. 한성이가 포스트잇에 의견을 쓰기 시작했다. 모둠 구성 문제에 대해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친구들 문제를 어떻게 설득하고 달래야 하는지 생각중이다.

(김영희 매개자, 사후 피드백 결과보고, 2017)

측면지원이 필요한 팀이 ‘답이없다’조인 것 같다. 한성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반가운 일인데. 하선이가 말을 하지 않자 모두가 비하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였다. 철이가 ‘야 씨 발 똑바로 못해? 말 못해!’ 하선이를 상대로 심한 말투로 공격하는데 다들 보고만 있었다. 철이는 우선 지켜보고 철이와 가까운 우현이만 달래면 미션수행이 어렵지 않을듯한데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박수연 매개자, 2017, 사후 피드백 결과보고)

바. 사후 시사회

사후 시사회는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현장에서 실행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특히 각자 역할에 따라 스스로 작성한 미션은 어떻게 수행했으며, 심화인터뷰 내용은 영상으로 넣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도록 결과물이 이루어졌는지, 비용에 사용은 국가 세금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모둠내에서 준비하는 자신들의 모둠의 활동 결과를 내놓는 자리이며 스스로 서로 평가하는 자리이다. 모둠의 준비된 상태만큼 결과물도 나오기 마련이며, 결과물은 동영상 또는 무언극, PPT 등 여러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사. 사후 인터뷰

(1) 사후 인터뷰와 매개자의 내면 들여다보기

사후 인터뷰는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아이들과 매개자가 만나는 마지막 과정이다. 반복된 논의 속에 합의 된 현장 실행이 끝나고 나면 매개자와 일대일로 만나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이며, 서로에 대해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다.

(2) 사후 인터뷰 결과

매개자는 자신이 기록한 성장일지에서 그리고 매회차별 사전 사후 피드백 과정에서 서로 확인하고 느끼며 의미와 가치를 설정하고 대처했던 아이들에 대해 마지막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 참여 학생은 자신에 대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아서 생각의 변화가 되었다’, ‘스스로 뭔가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용기를 조금씩 내기도 내지 않기도 한다’ 고 표현한다. 다음은 매개자와 학생의 사후 인터뷰 대화내용이다. 린스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로 하위권 성적을 유지하는데 도대체 얘기를 부치지 못할 정도로 까칠하다. 모든 대답은 ‘몰라요’, ‘귀찮아요’, ‘못해요’ 로 일관하면서 유난히 서현이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매개자 : 안녕 잘 지냈어..

린 스 : 네..(단답형으로 대답)

매개자 : 이거 작성해야 하는데...할 수 있겠어?

린 스 : 네..

매개자 :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써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쌤이 궁금한게 있는데

린 스 : 뭔데요???

매개자 : 너가 항상 못해요 라고 하잖아 근데 쌤은‘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 그럴까? 지난주 너가 저 다음주 못와요 했잖아. 그런데 너가 올거니까 전화해 주세요 처럼 들리더라. 그래서 너 늦게 오면 전화했어(린스는 전화통화를 한 뒤로부터 프로젝트 시간에 늦으면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린 스 : 옅은 미소를 짓는다(린스는 사후인터뷰지를 모두 작성했고) 한참 후 쌤!! 그때 주신 선물!!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요?

매개자 : 그래 모둠원들과 얘기해 보고 누구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의 돈으로 할지 계획 세워 센터 오면 되는데...

린 스 : 방학 시작하고 와도 되요?

매개자 : 물론이지. 미리 연락 해주고(린스는 방학후 계획을 세워 센터를 방문했다. 서현이를 비롯한 5명의 아이들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다. 유리벽 취급하던 서현이와 무척 가까워진 듯 했다.)

(김송이 매개자 인터뷰, 2017)

7) 사후시사회에서 아이들에게 현장실행과정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재현하는 것인데 모둠원이 협의에서 계획하고 싶다면 계획을 세워 같이 센터를 방문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참고로 실행과정은 논의, 협의, 조정, 합의를 거쳐 규칙을 정하고 역할을 나누어 또래 문화를 즐기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 전과정을 영상 제작하여 제출하는 것임

사전 인터뷰에서 파악된 후인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였다. 프로젝트 과정에 제대로 논의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로 잔다. 담임교사의 말에 의하면 교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잠깐 모둠에서 논의에 참여할 때면 자기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다툼이 일어나기 일쑤다.

매개자 : 어떻게 지냈어?

후 인 : 그냥 뭐...그렇게(피곤에 지친 모습).

매개자 : 그럼 이거 작성해 보는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나랑 하자. 갑자기
쭈~우~~옥 작성을 하다가 자신의 변화에 대한 항목에서

후 인 : 돈 잊어버렸을 때 써도 되요?

매개자 : 그럼. 미션비용 분실했을 때 말하는 거지?

후 인 : 네^^ 그 때 충격이었어요. 짜증나고 덥고 학교에 돌아갈 돈은 없지. 엄마는 전
회해서 왜 안 오냐고 볶아 데죠. 돈은 구하자고 아이들과 얘기는 됐는데 아무
도 하려고 안하죠. 어디에다 사정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매개자 : 어떤 것이 충격이었니?

후 인 :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둔 라면 1,200원 짜리를 10,000에 팔았다는데 놀랐죠. 안되
는 일이 되버리니까.

매개자 : 왜 안된다고 생각한 거야.

후 인 : 될 수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걸 사주겠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고
개를 숙이며 잠시 말이 없다) 안되는 게 되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안되는 것
은 안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개자 : 어떤 생각??

후 인 : 아니 뭐 안되는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후인이는 사후인터뷰
지를 다 작성 하진 못했지만 또박또박 말로 표현하고 있었다).

매개자 : 아 그래... 정말 다행이네(매개자는 후인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자면서 아빠의
폭력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아빠에게 대들면 자신과 엄마에게 더 심하
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 때문에 비굴하게 참고 있어야 하는 자신을 원망했던
아이이다. 저녁에 잘 때 배게 밑에 칼을 두고 잔다던 아이의 말이 떠올랐다. 이번
의 경험이 아이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
겠다고 생각했다).

(전미화 매개자 인터뷰, 2017)

사전 인터뷰에서 호현이는 유복한 가정의 아이였다. 교사 협의회에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며 떠드는 정도가 심각해 교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도 호현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다. 선한 미소와 쌍꺼풀을 가진 이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고 다독여야 되나 생각이 많아졌다. 현장 실행에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심화인터뷰를 맡았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만났을 때

매개자 : 어서와~~

호 현 : 쌤!! 왜 비신 쌤 안와요(호현이는 연구원이나 매개자중 젊고 예쁜 여자를 선호하
며 관심을 보이곤 했다).

매개자 : 이거 서운하네. 쌤이 인터뷰 와서 싫다 이거지. 알았어.
호 현 : 아니...아니요. ㅎㅎ 그냥 물어 본건데...(살짝 웃는다)
매개자 : 자 이거 작성해 볼까(호현이는 쓰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모둠 논의 과정에서 호현이의 소감 기록은 '좋았다', '싫었다', '재밌었다' 단순 표현 이상을 쓰지 않는다. 현장 나가기 전에 역할을 나누면서 소감을 조금 길게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후인터뷰지를 작성하는데 긴 문장을 쓰고 있었다. 자신이 달라진 것이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서.)
호 현 : 뭔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마음
매개자 : 마음먹은 것이 있는 거야?
호 현 : 스스로 뭔가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호현이는 외동으로 자란 듯 했다. 혼자 나가서 뭘 하고 싶어도 엄마가 극구 반대하셔서 객사도 제대로 혼자 나간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모둠에서 현장가기 전에 역할을 나누는데 '사진짱'을 맡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가 하고 싶어 해서 그냥 인터뷰 한다고 했다고 했다. 호현이는 이것을 논의할 때 친구를 배려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워서 사비로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었는데 규칙이라 꼭 참았다고 했다. 호현이는 이것을 인내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숙연 매개자 인터뷰, 2017)

사전 인터뷰에서 호민이는 아침을 엄마가 차려 주는 것처럼 말했었다. 몸이 건강(해소 천식)하지 않다고 했다. '왜 사는 건지 모르겠다' 는 표현을 해서 놀랐다. 인터뷰 과정에 뭔가 앞뒤 얘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교사협의회에서 학교와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조모와 사는 아이였다. 말이 거의 없고 또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감지되었다. 모둠 활동에서 광희가 주로 비하 하듯이 말을 하곤 했다. 그럴 때 호민이는 입을 닫는다. 광희보다 서열이 아래인 진우의 거친 욕이 첨가 되면 호민이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사후 인터뷰에서 만난 호민이는 여전히 말이 없다.

매개자 : 오랜만이야.
호 민 : 네..
매개자 :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생각나는 거 한번 써 볼까
호 현 : 네(조용히 사후 인터뷰지를 작성한다).
매개자 : 동영상 아주 잘 만들었더라(호민이는 현장 실행 후 동영상 편집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해서 도맡아 해야 했다. 그런데 내심 싫지 않았던 모양이다. 며칠 밤을 새워 기본 편집본이 나오고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내용 전달이 안되니 영상에 사진과 소감을 같이 실자고 카톡상에서 제안을 했다. 아마 내 기억에 호민이가 모둠 활동을 한 이후 처음 제안이었던 것 같다).
매개자 : 만드느라 힘들었겠다(?)
호 민 : 좋았는데..
매개자 : 그랬어. 왜 너가 한다고 그런거야. 쉽지 않았을 텐데
호 민 : 우리 모둠 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아이들은 하지 않으려 하고.. 뭐..
매개자 : 너가 만든 영상 카톡으로 미리 보고 진우가 욕 했다면?(진우는 호민이를 무시하곤 한다. 거기에 말도 험하게 함부로 하는 편이다).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
호 민 : 아..(한참을 말없이 있다가)네. 조금씩 용기내고 있어요(아이들에게 자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소극적인 아이이기도 하지만 진우와 광희가 '스비자'

을 연신 해대면 아예 입을 열지 못한다).

매개자 :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호민이는 자신과 광희와 진우를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하고 때로 아예 입을 닫기도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 민 : 용기 만나기도 하고...나기도하고 그냥 그래요.

호민이와 광희 진우 모듬은 동영상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모듬원들이라며 광희와 진우가 보였던 '자녀' 연발하며 거부하던 아이들이 동영상 시사회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심쿵했다. 그날 호민이는 병원 천식으로 입원을 했고 아이들은 선물로 받은 상자의 내용물을 분리하면서 호민이의 것이라고 챙기고 있었다. 매개자는 병원에서 호민이와 함께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아이들이 호민이 뒤편으로 챙겨준 선물을 전했다 호민이는 밝은 모습이었다.

(박수연 매개자 인터뷰, 2017)

IV. 결론

요컨대, 학부모 매개자 되기는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론과정'은 마음열기 및 센터이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MBTI), 의사소통구조 이론과 실제, 좋은 질문, 미션작성 및 실행, 영상제작 발표, 매개자 사례 발표, 청소년 문화, 놀이, 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MBTI)'는 매개자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반성의 시간이다. '의사소통 구조의 이론과 실제'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미션 작성 및 실행'은 아동·청소년과 장시간 논의를 거쳐 실행할 것이 합의에 이른 후 작성하게 된다. '영상제작 및 발표'는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진 현장 활동 내용 및 기록을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결과물을 통해 같이 공유한다. '실습과정'은 주로 '타운홀미팅'과 '초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다.

이 중 타운홀미팅은 정해진 시간과 의제 속에 낯선 아이들을 만나 의견을 내도록 촉진하고, 조율하며, 테이블 내 공감결과를 전체 합의로 끌어내는 과정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제안하면 중·고교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기획되는 프로젝트이다. 참여관찰은 타운홀미팅과 초등학교 프로젝트에 참여가 어려운 매개자를 대상으로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관찰이다.

'학부모 매개자 되어가기' 과정은 사전인터뷰와 선호유형검사(MMTIC), 프로젝트 기획, 교사협의회, 회차별 프로젝트 실행 사전 피드백, 회차별 프로젝트 사후 피드백, 사후 시사회, 사후 인터뷰를 거쳐 매개자가 되어 간다. 첫째, 사전인터뷰와 선호유형검사는 참여 대상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으로 매개자 자신의 이해를 기반으로 아이들과 가까워지며 가정형태, 또래지지체계, 교사지지체계, 무기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다.

둘째, 프로젝트 기획은 학교의 고민을 학부모 매개자가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이다. 셋째, 교사협의회는 사전인터뷰, 선호유형검사 등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학교의 환경 및 상황을 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학교 관리자분들과 교류한다. 넷째, 회차별 프로젝트 실행 사전 피드백은 진행할 내용을 공유하고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인식했던 정보를 통해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듈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일어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회차별 프로젝트 사후 피드백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서 각자 모듈에서 활동했던 매개자가 만났던 아이들을 호명하고 사전 준비과정에 진행하기로 한 내용과 프로젝트 과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이다. 여섯째, 사후 시사회는 아이들이 서로 평가하는 자리이다. 현장 활동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주지 않아도 소감에서 아이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평가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정한 모듈내 원칙, 미션 수행정도, 예산 사용 원칙, 역할 수행 정도가 결과물에 드러났는지를 같이 보게 되는 자리이다. 여덟째, 사후 인터뷰는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아이들과 매개자가 만나는 마지막 과정이다. 서로에 대해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으로 매개자는 자신이 기록한 성장일지와 매회차 사전·사후 피드백 과정의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대응했던 아이들에 대해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학부모 매개자 되기’는 보살피기 어려운 아이에 대한 보살핌을 채워가는 자기준비임을 확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묻는 ‘자기 물음이고, 자기 돌봄’이다. 학부모 매개자 교육 참여자들은 자기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학교 현장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학부모 매개자 되기는 교실현장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여 교육의 핵심 주체로 바로 서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학부모가 교사와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학부모의 공적역할은 교육의 변방에서 교육의 핵심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소연(2009). “학부모지원팀 운영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강태중·강충서(2013). “사교육 담론에 담긴 학교 교육의 의미 역사적 고찰.” 교육사회학 연구, 23(4호), 28.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학부모 학교 참여 길라잡이.
- 교육부(2015). “2015 학부모 지원정책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학부모 학교 참여 길라잡이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2016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
- 김장중(2017). 왜 학부모는 교육주체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학부모의 지위와 역할 재검토. 학부모연구, 3(2), 147-172.
- 김정택·심혜숙(1997).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 안내서.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심혜숙(2000).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징.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박일관(2014). 혁신학교 2.0. (주)에듀니티. 19~39.
- 박휴용(2014). 질적연구 방법론.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배은주(2006). “청소년센터의 대안적 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시사점 탐색.” 한국교육사회 학연구, 16(2), 61-83.
-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2017). “교육통합모델과 학부모 매개자되기” FG.I보고서
- 손준중(2012). 편안한 협력자 또는 불편한 감시자: 초등학교 교사의 학부모에 대한 감정연구. 한국교육, 39(3), 33-57.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저(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한영문화사. 448~473.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공부도 좀 재밌어요 교사협의록.” 내부문건.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공부도 좀 재밌어요 프로젝트 참여자 사전·사후 인터뷰.” 내부문건.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공부도 좀 재밌어요 프로젝트 학부모매개자 사전·사후 피드백 결과보고.” 내부문건.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소풍프로젝트 교사협의록.” 내부문건.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소풍프로젝트 참여자 사전·사후인터뷰.” 내부문건.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소풍프로젝트 학부모매개자 사전·사후 피드백 결과보고.” 내부문건.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자존감회복프로젝트 교사협의록.” 내부문건.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자존감회복프로젝트 참여자 사전·사후인터뷰.” 내부문건.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 “자존감회복프로젝트 학부모매개자 사전·사후 피드백 결

과보고.” 내부분건.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학부모 동아리 인터뷰.”내부분건.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2017).“교육통합모델과 학부모매개자 되기.”학부모·교사·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포커스그룹인터뷰 내부분건.

오육환(2013).“사회자본의 교육적 해석과 활용. 136~141.

이명희 외(2009).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의 실태파악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2015).“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육아정책연구소.

이영철(2009), “보다나은 사례연구 논리와 예시”.정부학연구, 15(1), 189~213

이영호(2002).“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의 청소년 학습문화.”학술대회자료집, 55-92.

임성희·김천기·임익산·조아영(2017), “교육통합모델 구상 및 실천사례연구: 완주군 교육통합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27(2), 141~173.

장명선·한지영·김민경·조연숙(2015).“학부모 학교 참여활동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부.

전은희·서덕희(2014).“학부모회 활성화에 관한 질적사례연구.”한국교육사회학회, 32(3), 235-268.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2015). 질적연구방법론(다섯가지접근). 서울. (주)학지사.

존 테일러 개토(2015). 학교의 배신. 서울. 도서출판 민들레.

최상근(2009), 학부모지원증장기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설정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2010),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Doucet, F.(2011). Parent involvement as ritualized practice.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42(4), 404-421.

ABSTRACT

Becoming Parent Mediator for Performing Successful Education Integrated Model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parents become ‘parent mediator’ that can implement education integration model in the process of parent mediator education and practice in the school field. Specifically,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how parent mediator education for implementing the integrated model of education, and to investigate how the participants in parent mediator education practice the project of education integration model in the school field and how to become parent mediator through such a practice course.

The curriculum for parental mediator is composed of theoretical course and practice course(meeting in town hall, participation in elementary school program and observation in participation) and is participated in education integrated model project after completing this curriculum. ‘Becoming parental mediator’ is fulfilled through pre-course before project to understand on himself(MBTTI), pre-interview and preference-type check to be known on student(MBTTI), project-planning based on understanding himself and children, teacher-council through such a analysis and readiness, pre-feedback for practice by time to be discussed and practiced jointly among mediators participated in pre-readiness course, post-feedback for practicing a project by time and post-interview step as a final course to meet with children and mediator after finishing all the courses.

The results show that becoming a parent mediator is self-readiness to fill care for a child who is difficult to care for. On the other hand, it is ‘self-questioning,’ and ‘self-care’ process that the participants asks themselves what to prepare for meeting children. Also, becoming a parent mediator means he or she is positioned as a subject that respond jointly with the teachers to the problems in the classroom. If the parents can cooperate with the teachers, the public role of the parents can be changed from a peripheral role to a core role in education.

*Key words : Education integrated model, parent mediator, parent mediator education